

'96 아메리카 식품전

4천 6백만 달러 무역효과 기대 ... 전문 전시회로 자리잡아

'96 아메리칸 식품전이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 까지 서울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89년에 처음 열린 후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94년 행사보다 10여 개 업체가 늘어난 70여 개의 미국 현지 농,수산 기초식품 및 냉동식품업체가 참가하여 국내 관련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베이커리 분야와 관련하여 관심을 모은 품목은 냉동피자 등 냉동식품, 치즈류, 원부재료, 아이스크림 등이었다. 특히 냉동피자와 모짜렐라 치즈 등이 대거 선보여 미국업체들이 한국의 피자수요 증대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냉동피자류를 전시한 업체는 아로시 엔터프라이즈(Arosi Enterprises)사, 리틀 레이디 푸드(Little Lady Foods)사, P.B 인터스트리사, A & J 치즈 컴퍼니사, 슈완즈 푸드 아시아(Schwan's Foods Asia)사 등이



- ① 아로시 엔터프라이즈사는 치즈류 외에도 냉동 피자빵을 선보였다.
- ② 슈완즈사는 냉동피자를 상반기 중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통시킬 계획이다.
- ③ P.B 엔터프라이즈사의 전시품. 이 업체는 냉동피자, 냉동샌드위치 등 다양한 전자 레인지용 제품을 소개했다.
- ④ A&J 치즈 컴퍼니사는 모짜렐라치즈와 냉동피자를 하나의 쇼케이스에 전시했다.
- ⑤ (주)한국 아이비요크는 이번 행사에서 제품과 가맹점 모집 홍보를 병행했다.





었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간이 길고 맛도 즉석피자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장점으로 강조했다. 이중 아로시 엔터프라이즈사는 피자용 냉동빵을, P.B 인더스트리는 냉동피자 외에도 전 자레인지를 이용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류를 소개해 관람객의 시선을 모았다. 특히 쉬완즈 푸드 아시아시는 조만간 이번 행사를 시발로 올 상반기 중에 한국시장에 시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의 또다른 특징 중의 하나인 치즈류를 전시한 업체는 아로시 엔터프라이즈사, 위스콘신 농무성, 미국 유제품수출협회, 레프리노 푸드 컴퍼니(Leprino Food Company)사, A&J 치즈 컴퍼니사 등이었는데 제빵용 치즈보다는 모짜렐라, 파마산 등 피자용 치즈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아이스크림 업체로는 (주)한국 아이비요크, 리 엔터프라이즈사 등이었는데 한국 아이비요크는 지난 94년 3월 미국 본사와 독점중판 계약을 체결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직영점 외에 28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리 엔터프라이즈사(Lee Enterprise)는 한국의 대성 제네랄 엔터프라이즈사와 합작, 올해 안에 한국에 150여 개의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베이커리 관련 원부재료 업체로서 아보세트 생크림으로 유명한 DXR 인터내셔널사가 생크림 외에도 각종 커피 크림, 즉석 계란빵, 초콜릿 등을 새롭게 선보였고 미국 야생블루베리협회와 캘리포니아 호두협회가 제과용 토핑물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미국 농업무역관(ATO)은 행사기간 동안 약 3만 7천여 명이 방문했고 3만 2천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과 450만 달러의 즉석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돼 이 행사가 전문 전시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행사로 인해서 앞으로 4천 6백만 달러의 무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ATO 관계자는 "지난 3월에 열린 일본 푸덱스(FOODEX)에도 이 행사보다 큰 규모로 미국의 72개 업체가 참가했지만 비즈니스 상담 1천 5백여 건, 예상 무역효과 3천 7백만 달러에 불과 했다"며 "앞으로 한국의 아메리카 식품전에 대한 미국 업체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 <글/손인수>